

members take up over 70% of the Korean Protestants. Thus, it is enough to say that Calvin, as one of the founders of the Presbyterian Church, takes a special place of affection and interest in Korea.

In this study I have observed the history of Calvin studies in Korea. Nevertheless, in order to take further steps forward Calvin studies in Korea, a few issues must be resolved. First a list of Calvin studies must be compiled for all Korean publications concerning Calvin and Calvinism. Secondly, work needs to be done for a more meticulous translation of Calvin's original works. Thirdly, struggle needs to be done to reinterpret Calvin's ideas for 21st Korean church and society. Whether Calvin would turn into a fossilized historical artifact or continue in influence Korea as a living tradition would be up to Korea's Calvin scholars.

|| Key Word ||

Calvin, Calvinism, Calvin Study, Korean Church, Presbyterian Church

6 1551년부터 1555년까지 갈뱅과 불링거 : 예정론에 대한 볼섹 논쟁 속에서 야기된 두 사람의 신학적 갈등

박상봉 박사 / 대신총회신학연구원, 교회사

들어가며

저의 최근까지도 종교개혁사에 대한 연구는 루터, 츠빙글리, 그리고 갈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한국 실정에서 지금까지도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이다. 더욱이 갈뱅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비교할 때 루터나 츠빙글리에 대한 연구는 기초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위의 세 중심적 종교개혁자들과 동시대를 살면서 협력-교류했던 부처, 외콜람파디, 멜란히톤, 불링거 같은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관심 역시도 우리에게 너무 멀리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처음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신학과 교회의 개혁운동으로 공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6세기 당시 종교개혁은 결코 거스를 수 없었던 전 유럽의 신학-교회적인 변화물결로써 각

1) 이 글은 필자가 2010년 10월 3일에 한국복음주의역사신학회에서 발표한 줄고 "1556년 이후 하인리히 불링거의 예정론 : 불링거는 페터 M. 베어미글리와 갈뱅의 예정론에 대한 영향을 받았는가?" 2010년 10월 3일 한국복음주의역사신학회 발표논문(미간행)과 연계 속에서 쓴 것임을 밝힌다.

인물들(종교개혁자들)과 도시들 사이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 없이 발전되거나 유지될 수 없었다. 이때 루터, 츠빙글리, 그리고 갈뱅뿐만 아니라 또한 아직 우리에게 이름이 생소한 솔한 종교개혁자들이 신학 저술의 유통, 인적 교류, 서신 교환, 유학생 등의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 상호 소통하면서, 한편으로는 종교개혁의 공동적 신학유산을 통해 신앙 정체성과 교회 본질을 정립하고 계승해 나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각 종교개혁자들이 살았던 다양한 지역(정치) 상황들과 교회 현실들 속에서 그 신학유산에 대한 자신들만의 고유한 색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갔다는 것이 기억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금번 갈뱅(제네바)과 불링거(취리히)의 관계에 대한 종교개혁사의 한 단면을 살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한국에서 불링거는 매우 생소하다. 츠빙글리의 후계자요, '스위스 제2신조'를 작성한 인물이라는 것 이외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549년 *Consensus Tigurinus*가 도출되고 2년이 흐른 후에 제네바에서 발생한 불색의 예정론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갈뱅과 불링거 사이에 신학적 갈등이 발생했다. 불색의 비판은 갈뱅이 1550년 8월에 출판한 *Institutio*의 내용을 겨냥한 것이다. 1551년 11월 14일 세 도시들에 보낸 서신에서 갈뱅(과 제네바 목회자회)은 자신의 예정론에 대한 입장이 이미 소개된 *Institutio*에 잘 드러나 있다고 밝히고 있다.²⁾ 물론, 감정적 불편함으로까지 전개되었던 두 사람의 대립은 본질적인 차이 속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다. 두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역사적 어거스틴주의의 중심 사상 위에서 예정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³⁾ 하지만 이 신적인 운명에 대한 접근방식은 갈뱅과 불링거 사이에 신학적 반목을 낳게 한

2) 1551년 11월 14일에 제네바 목회자회가 베른, 바젤, 그리고 취리히 목회자회에 보낸 서신(CO, VIII, 207): "Non ignotaest vobis fratris nostri Calvini Institutio, quam hic praecipue oppugnandam suscipit." 여기에 언급된 *Institutio* 1550년 판은 1553년과 1554년에 재출판되었다. (Herman J. Selderhuis(Hg.), *Calvin Handbuch*, Tuebingen: Mort Siebeck 2008, pp. 199-200.)

3) Colnelis P. Venema, *Heinrich Bullinger and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Michigan: Baker Academic, 2002, p. 69.

근원적 질문이 놓여 있었다. 즉, '유기'의 개념이다. 선택과 유기를 하나님의 의지적 작정에 근원을 두고 있는 갈뱅의 입장과 다르게, 불링거는 오직 선택만을 하나님의 작정에 근원을 두었으며, 반면에 유기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간이 자유의지적으로 행한 타락의 결과로 본 것이다.⁴⁾ 더욱이, 불링거에게 있어서 다른 흥미로운 점은 불색 논쟁과 관련하여 갈뱅과 신학적 갈등을 표출했을 때, 비록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지라도, 선택과 유기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연결시켜 이해한—불색 논쟁이 발생한 해에 탈고되어 출판된—*Dekaden*⁵⁾의 논리를 조금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색 논쟁으로 인한 갈뱅과의 불화 이후로 불링거는 1556년에 출판된 「스위스 제2신조」에서까지 유기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간 스스로의 타락의 결과인 죽음과 영원한 형벌 아래 있는 비참한 상태로 이해하였다. 그럼 왜 불링거는 불색 논쟁 이래로 유기를 하나님의 의지와 연결하여 이해하지 않았는가?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겠지만 불색 논쟁과 관련하여 갈뱅과 교류한 서신들의 내용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추측한다면 “죄의 원작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리적 해답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타락전선택론적(suprarapsarisitisch)인 이해 속에서 선택과 유기를 하나님의 의지적 작정과 연결시키면서 모든 인간이 동일한 상태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갈뱅의 예정론⁶⁾에 대해 새롭게 의문을 제기했다고 볼 수 있다.

4) Dekade 4, *Heinrich Bullinger Schriften* IV, hg. Emidio Campi, Zuerich: TVZ 2006, 231: "……durch die goettliche Vorsehung, die alles lenks und leitet, tut der Mensch das Boese, dass er will, so dass er das Boese erleiden muss, das er nicht will." 불링거는 아담의 타락의 원인을 인간의 자유의지의 남용과 사탄의 유혹에 두고 있다.

5) Dekade 4, *Heinrich Bullinger Schriften* V, 451: "Die Vorherbestimmung aber ist der ewige Ratschluss Gottes, durch den er beschlossen hat, die Menschen entweder zu retten oder zu verderben, gemäss dem unverrückbaren und festgelegten Zeitpunkt des Lebens und des Todes."

6) *Institutio*(1550) XIV, 5(CO, I, 865): "Praedestinationem vocamus aeternum Dei decretum, quo apud se constitutum habuit quid de unoquoque homine fieri vellet. Non enim pari conditione creantur omnes; sed aliis vita aeterna, aliis damnatio aeterna praeordinatur."

이러한 전제에도 불구하고 예정론과 관련하여 1551년과 1555년 사이에 갈뱅과 불링거의 신학적 갈등은 외적인 동인들과도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 기억될 필요가 있다. 제기된 신학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숙고와 함께 당시 정치 상황, 교회 현실, 시대를 보는 목회자의 안목 등도 녹아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글은 이에 대한 전반의 구도 속에서 기술되지는 않았다. 여기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제네바에서 불섹에 대한 심의 과정과 그에 대한 결과 속에서 발생한 갈뱅과 불링거의 신학적 갈등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피는 데 있다. 두 사람이 당시 자신들의 시대 속에서 예정론과 관련하여 어떤 인식적 접근을 했는가를 확인하는 것 역시도 의도되었다. 그러나 이 글은 갈뱅의 *Institutio*와 불섹 논쟁 이후에 쓰인 글의 전개 속에서 확인될 두 저술들에 대한 깊이 있는 신학적 분석 속에서 기술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불링거가 의문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두 사람이 갈등에 이르게 된 신학적 요지가 무엇이었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 1551년 10월 26일에 발생한 갈뱅의 예정론에 대한 불섹의 비판⁷⁾

카르멜파(Karmeliter)의 수도사였던 히에로니무스 불섹(Hieronymus J. Bosc)은 1545년에 로마 가톨릭교회를 떠나 페라라 공작부인(Herzogin von Ferrara)의 보호 아래서 결혼을 하고 의사로서 직업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사람들을 속인 것과 관련하여 공작부인과 갈등을 일으킨 프랑스 의사는 1551년 초에 제네바로 거처를 옮기고 의료 활동을 지속하였다. 제네바에 머물게 된 이래로, 그는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가진 지식인으로서 그곳 교회의 가르침에 크

7) 불섹에 대한 논쟁과 재판에 대한 전 과정의 기록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Ioannis Calvini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 W. Baum, E. Cunitz und E. Reuss, Bd. VIII, Braunschweig 1863-1900(이하 *CO*, VIII), pp. 141-248(ACTES DU PROCÈS INTENTÉ PAR CALVIN ET LES AUTRES MINISTRES DE GENEVE A JÉRÔME BOLSEC DE PARIS, 1551).

게 만족했지만, 그러나 예정론에 대해서는 늘 의문을 제기하였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예정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주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하였다. 불섹의 행태는 제네바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었고, 이와 관련하여 갈뱅은 같은 해 3월 15일 목회자들의 모임(Vénérable Compagnie)에서 불섹에게 자제하도록 엄밀한 주의를 주었다.⁸⁾ 하지만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섹에게서 별다른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급기야 불섹은 같은 해 10월 16일 성 베드로 교회에서 열린 목회자들을 위한 금요집회(Congrégation-취리히 '예언회' <Profezei>의 제네바 형식으로써⁹⁾)에서 장 드 세인트-안드레(Jean De Saint-André)가 요한복음 8 : 47을 예정론에 근거하여 설교하고 있는 도중에 이를 가로막으며 이의를 표명하였다.¹⁰⁾ 이때 불섹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요점으로 정리될 수 있다.¹¹⁾ 먼저, 인간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택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인간의 구원은 선택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의 신앙과 불신앙에 근거한다. 즉, 인간의 운명은 처음부터 정해지지 않았으며 신앙 혹은 불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시시각각 유동적으로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유효하며, 다만 인간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제공된 구원을 취하거나 혹은 취하지 않거나 할

8) F. W. Kampschulte, *Johann Calvin, Seine Kirche und sein Staat in Genf*, Leipzig : Verlag von Duncker & Humblot 1899, p. 127.

9) van Heike A. Oberman, "Via Calvinii : Zur Entraetselung der Wirkung Calvins," *Zwingliana XXI*(1994), p. 52.

10) *CO*, VIII, pp. 145-146 ; Kampschulte, *Johann Calvin : Seine Kirche und sein Staat in Genf*, pp. 127-128 ; *Calvin-Studiengabe*, hg. Eberhard Busch u. a., Bd. 4, Neukirchen-Vluyn : Neukirchener, 2002, p. 84. 장 드 세인트-안드레는 요한복음 8 : 47에 대한 설교 속에서 다음의 내용을 피력하였다 : 아버지로부터 온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만약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새롭게 거듭나지 않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택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11) *CO*, VIII, pp. 147-149(S'ensuyvent les articles que nous avons extraictz des propos tenuz ce iourd'hui 16. d'octobre 1551 par un nommé maistre Hierosme) ; *CO* VIII, pp. 205-208(Lettre des Ministres de Geneve à ceux de Bâle j de Berne et de Zurich).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성육신하셨다는 성경의 증언은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이미 영원 전에 유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불섹은 선택과 유기에 대한 이중예정론은 잘못된 것임을 표명하였다. 왜냐하면 생명과 죽음으로 사람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을 악의 창시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앙과 불신앙에 대한 신적인 예지를 넘어서 하나님이 생명과 멸망을 미리 작정하셨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불섹은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타락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드러내기 위해 신적인 예지만을 역설한 것이다.¹²⁾ 그의 사고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구원론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펠라기안적인 입장에서 서 있다고 할 수 있으며,¹³⁾ 내용적으로는 알베르투스 피기우스(Albertus Pighius)가 1542년에 쓴 *De libero hominis arbitrio et divina gratia libri decem*¹⁴⁾ 안에서 주장한 논조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¹⁵⁾

불섹은 갈뱅의 예정론을 반대하는 자신의 논증과 함께 그곳에 참석한 목사들을 비난하고, 회중들에게는 미혹되지 않기를 큰소리로 떠들었다. 이 소동과 관련하여 베자는 자신이 쓴 「갈뱅의 전기」에서 갈뱅은 불섹의 연설을 시작할 때 들어와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경청한 이후에, 곧바로 성경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예정론을 인용하면서 약 1시간 동안 불섹의 논증에 대해서 반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⁶⁾ 갈뱅의 언급이 끝나자 이어서 기욤 파렐(Guillaume

Farel)이 불섹의 어리석음에 현혹되어 어느 누구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짧지만 위엄 있게 호소하였다. 불섹은 갈뱅과 파렐의 논박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고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그 모임에 참석했던 법원관료인 장 드 라 미즈너브(Jean de la Maisonneuve)에 의해서 교회의 평화를 깨뜨린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되었다.¹⁷⁾ 그날 오후에 제네바 목회자회는 불섹의 주장을 반박하는 17개 조항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했고,¹⁸⁾ 그에게 ‘신성모독과 이단’에 관한 죄목으로 엄중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1551년 불섹에 대한 심의 동안에 정확한 날짜가 확인되지 않는 금요목회자모임에서 갈뱅이 설명한 예정론에 대한 이해가 1562년에 다음의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CONGREGATION FAITE EN L'ÉGLISE DE GENEVE, EN LAQUELLE A ESTÉ TRAITTEE LA MATIERE DE L'ELECTION ETERNELLE DE DIEU*.¹⁹⁾ 이 저술과 함께 갈뱅은 1551년 12월 18일 목회자들의 금요모임에서 현재 논쟁 중에 있는 주제인 예정론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인 설명을 시도했다. 이때 표명된 내용은 *De aeterna Dei Predestinatione*의 제목으로 곧바로 출판되어 1552년 1월 1일에 *Consensus Genevensis*라는 명칭하에 시위원들에게 새해 선물로 제공되었다.²⁰⁾ 여기에는 예정론에 관한 깊은 지식적 이해에 근거하여 불섹의 주장이 논박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위에서 언급된 피기우스(와 게오르기우스)의 저술에 대한 답변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²¹⁾ 하지만 이 제네바 일치

12) C. B. Hundeshagen, *Die Konflikte des Zwinglianismus, Luthertums und Calvinismus in der bernischen Landeskirche*, Bern 1842, p. 271.

13) Kampschulte, *Johann Calvin : Seine Kirche und sein Staat in Genf*, p. 136.

14) 원제목 : *De libero hominis arbitrio et divina gratia libri decem autore Alberto Pighio Campen*, Coloniae 1542 mense Augusto.

15) Perter Walser, *Die Praedestination bei Heinrich Bullinger*, Zuerich : Zwingli-Verlag 1957, p. 168. 불섹은 제네바 목회자회가 제시한 17개 조항에 대한 답변에서 인간의 타락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Kampschulte, *Johann Calvin seine Kirche und seine Staat in Genf*, p. 131).

16) Kampschulte, *Johann Calvin seine Kirche und seine Staat in Genf*, p. 128 ; 데오도르 베자/김동현 역, 「존 갈뱅의 생애와 신앙」, 서울 : 목회자료사 1999, p. 92.

17) Kampschulte, *Johann Calvin : Seine Kirche und sein Staat in Genf*, pp. 128-129.

18) *CO*, VIII, pp. 149-151(Memoire présenté au Conseil par les Ministres contre Bolsec) : 이 문서의 맨 끝에는 갈뱅을 포함하여 13명의 목사들이 서명되어 있다. Jacques Bernard, Jehan Calvin, Philippe de ecclesia, Abel Pouppin, M. Malisie, Nicolas Des Gallars, Jehan Poirier, François Bourgoing, Sainct André, Raymond Chauvet, Jehan Baldin, Michel Cop, Jehan Fabri.

19) *CO*, VIII, pp. 85-140 ; 3. Von der ewigen Erwaehlung Gottes(1551) 1562, Calvin-Studiengabe(Bd. 4), pp. 79-149.

20) *CO*, VIII, pp. 149-336 :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QUA IN SALUTEM ALIOS EX HOMINIBUS ELEGIT, ALIOS SUO EXITIO RELIQUIT : ITEM DE PROVIDENTIA QUA RES HUMANAS GUBERNAT, CONSENSUS PASTORUM GENEYENSIS ECCLESIAE A IO. CALVINO EXPOSITUS. GENEYAE, EX OFFICINA IOANNIS ORISPINI, M. D. LII.

21) 1552년 1월 중순에 갈뱅이 불링거에게 보낸 서신(*CO*, XIV, 252) : “.....Librum porro

서는 다른 스위스 교회들의 승인은 받지 못했다.

2. 1551년 12월 23일까지 불섹에 대한 재판 과정

제네바에서 불섹에 대한 재판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긴 시간 동안 여러 번의 심의들을 거치고, 이웃도시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법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는 처음 구금된 당일과 10월 20일에 두 번의 심문을 받았다. 이 심문에서 불섹은 제네바 교회의 모든 가르침들은 이해하지만, 칼뱅의 예정론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 제네바 목회자회에 의해서 시의회에 제출된 17개 조항은 세 번째 심문을 위해서 1551년 10월 22~23일에 불섹에게 제시되었다.²²⁾ 그는 자필로 쓴 답변서에서 자신의 생각과 믿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증명하였지만, 제시된 조항들에 대해서는 선명한 의견을 진술하지 못했다. 이미 언급된 것처럼 펠라기안적 입장에서 칼뱅에 의해서 주장된 신적 주권에 근거한 이중예정을 부정하고, 오히려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하여 구원이 현재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서술하였다.²³⁾ 이때 불섹은 자신이 주장한 내용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시 가장 유명했던 신학자들을 불러냈다 : 멜란히톤, 불링거, 그리고 브렌츠.²⁴⁾ 제네바 목회자회는 불섹의 답변서에 대한 긴 변증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다.²⁵⁾ 이 문서는 불섹의 주장이 이

contra Libertinos pridem editum intelligo. Et tamen huius nebulonis improbitas me compulit ut meae adversus Pighium responsioni quod restabat de praedestinatione attexerem.”(필립 샤프, 박경수 역, 「스위스 종교개혁」, 서울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pp. 510-511 ; Peter Opitz, *Leben und Werk Johannes Calvins*, Goettingen : Vandenhoeck & Ruprecht 2009, p. 84.)

22) Kampschulte, *Johann Calvin : Seine Kirche und sein Staat in Genf*, p. 131.

23) *CO*, VIII, pp. 159-162.

24) *CO*, VIII, p. 160 : “……et à present troys personnes doctes et de bonne estime : Melancton, Bulinger et Brence avec aultres.”

25) *CO*, VIII, pp. 163-172(Sensurent les repliques que font les ministres de la parolle de Dieu contre les responce escriptes par maistre Hierosme Bolsec). 이 변증서가 제출된 날짜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오직 칼뱅을 포함한 11명 목사들의 서명만 확인

단적 사상임을 더욱 분명히 밝히고 있다. 칼뱅의 입장만을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던 제네바 의회, 신분적으로 베른 시에 소속되어 있는 불섹의 그곳 의회를 향한 법적인 항의,²⁶⁾ 그리고 불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이 사건의 판결은 쉽게 결론나지 않았다. 10월 26일에는 성경, 교부들의 저술들, 신학적 논쟁저서들 등이 동원된 가운데 제네바 시위원회 앞에서 목회자회와 불섹 사이에 논쟁이 이루어졌다. 어느 한쪽이 승복하는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주목되어야 할 사안은 두 진영들이 자신들의 주장, 논박, 그리고 반대 의견을 라틴어로 정리하는 것과 그 정리된 내용을 합법적인 판결을 위해서 바젤, 취리히, 그리고 베른 교회에 보내는 것이 의결되었다는 점이다.²⁷⁾ 이 심문에서 불섹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깊이 있는 근거를 위해서 다양한 저술들을 살펴야 된다는 이유와 관련하여 감옥에서 풀어 줄 것을 시의회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그의 청원은 시의원들에게 관철되지는 않았다. 불섹에 대한 심문은 10월 29일과 30일에도 지속되었다.²⁸⁾ 칼뱅은 이 심문에서 그에게 이해시킨 12조항을 시위원회에 제출하였다.²⁹⁾ 이미 3주 동안 감옥에서 지낸 불섹은 11월 2일과 6일 사이에 열린 심문에서도 사법적 담당자들에게 재판의 빠른 진행을 통해서 자신의 비참을 끝내 줄 것과 감옥에서 꺼내 줄 것에 대한 청원을 재시도하였지만 기각되었다.³⁰⁾

된다.

26) *CO*, VIII, p. 173(Requête de Bolsec à Messieurs) : “Supplie treshumblement voz excellences vostre humble serviteur Hierome Bolsec subiect des magnifiques et tresredoubtés seigneurs de Berne detenu à present en voz prisons indeument et contre tout droit : ……” 불섹은 베른 정부에 공정한 범집행과 통상적인 자유와 수속절차뿐만 아니라 또한 짧고, 파벌이 없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예가 고려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Kampschulte, *Johann Calvin seine Kirche und seine Staat in Genf*, p. 133.)

27) *CO*, VIII, p. 172(Noté sommaire sur ce qui s'est passé du 22 au 30 Octobre) : “Il fut ordonné par Messieurs que les articles precedens avec les responses et repliques seroient traduites pour envoyer à Basle, Zurich et Berne.”

28) *CO*, VIII, pp. 181-183. 두 번의 시의회 판결문들, 칼뱅의 답변, 증인에 대한 심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이루어진 심문에서는 내용적으로 특별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29) *CO*, VIII, pp. 186-187(Articles presentés à Messieurs par les ministres pour faire interroguer ledict Me, Hierosme).

그 이후로 1551년 11월 14일에 제네바 목회자회가 바젤, 베른, 그리고 취리히에 합법적 판결을 위한 의견서를 보내기 전에 불섹에 대한 구명시도가 있었다. 칼 5세(Karls V.)의 가문에 속해 있는 부르고뉴(Bourgogne) 백작의 후손인 드 팔렉스(de Fallex)³¹⁾는 불섹의 석방을 위해서 11월 9일과 11일의 날짜가 적힌 두 서신을 제네바 시위원회에 보냈다.³²⁾ 이 서신들에는 갈뱅과 불섹 사이의 신학적 논쟁점(예정론)에 대한 어떤 입장표명도 없이 오직 드 팔렉스와 불섹의 개인사적인 관계들이 서술되어 있다. 특별히 불섹이 드 팔렉스의 부인의 오래된 병을 고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치의로 신실하게 활동했다는 것이다. 갈뱅은 1546년 드 팔렉스에게 고린도 주석을 헌정할 정도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족의 요청에 만족된 답변을 주지 않았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단절되었다.³³⁾ 그럼에도 기억되어야 할 것은 불섹에 대한 드 팔렉스의 관심은 제네바 시위원회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불섹이 교수형에 처해지지 않고 다른 도시로 추방된 것은 드 팔렉스를 어느 정도 힘입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³⁴⁾

불섹이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많은 목사들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제네바 목회자회는 1551년 11월 14일에 불섹의 합법적 판결을 위해서 베른, 바젤, 그리고 취리히 교회에 공적인 서신을 보내고, 각 교회들의 입장을 피력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³⁵⁾ 여기에는 크게 이미 앞서 살핀 불섹이 주장한 내용, 제네바 교회의 반박 입장, 세 도시들에 서신을 보내는 이유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세 도시들로부터 온 답변들은 갈뱅의 희망과는 달랐다. 그들은 제네바 교회를 지지하면서도 신학적인 전제 속에서만 불섹 논쟁을 평가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목회적이면서도, 교회-정치적인 이해 속에서 스위스 교회 전체의 안정을 고려하는 입장과 함께 자신들의 생각을 표명하길 원했다. 제네바 교회와 세 도시의 교회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다. 펠라기안 주의를 배격하면서 어거스틴의 입장에 근거하여 구원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진노의 도구로써 유기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근거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동의는 피력하지 않았다.

11월 27일에 도착한 취리히 교회의 답변서³⁶⁾에는 제네바 교회의 신앙망명자들에 대한 헌신과 말씀 사역에 대한 격려와 함께 예정론의 갈등으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어 있다. 당연히 불섹의 어리석은 실수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되었다. 특별히 불섹이 츠빙글리를 비난했다는 것과 자신의 생각이 불링거와 같다고 주장했다는 제네바 서신의 언급³⁷⁾에 대해서 취리히 교회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취리히 목회자회는 1551년 12월 1일에 제네바 시위원회 앞으로 보낸 서신을 통하여 츠빙글리가 자신의 저술

30) CO, VIII, pp. 195-200(Kampschulte, Johann Calvin seine Kirche und seine Staat in Genf, pp. 135-136.)

31) Jacques de Bourgogne, seigneur de Falais et de Bréda(?-1556). 갈뱅과 드 팔렉스 사이에 서신 교환은 1543년에 처음 이루어진 이래로 1552년까지 유지되었다. 하지만 현재 갈뱅이 드 팔렉스에게 보낸 서신들은 남아 있지만, 드 팔렉스가 갈뱅에게 보낸 서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사가들 중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진 이후에 갈뱅이 드 팔렉스의 서신들을 파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Mirjam van Veen, "In exce ; so honoris gradu, Johannes Calvin und Jacques de Falais," *Zwingliana* XXXII (2005), p. 7.)

32) CO, VIII, pp. 200-201(9. de novembre anno 1551), 202-203(XI de novembre a. 1551).

33) van Veen, "In exce ; so honoris gradu, Johannes Calvin und Jacques de Falais," p. 17.

34) 위의 책, pp. 17-18(1552년 1월 11일 뉴사텔에서 파렐이 갈뱅에게 보낸 서신(CO, XVI, pp. 214-242)); 필립 샤프, 스위스 종교개혁, p. 529.

35) CO, VIII, p. 207 : "Interea quum iactaret se in aliis ecclesiis complures habere a sua parte ministros, postulavimus a Senatu nostro ne prius de tota summa pronunciaret, quam habito ecclesiae vestrae responso cognosceret, nebulonem illum improbe suffragii vestri titulo abuti. Senatus tamen, sicuti a nobis rogatus erat, vos censuit consulendos."

36) CO, VIII, pp. 229-231(Réponse des ministres de Zurich à ceux de Geneve). 이것과 함께 12월 1일 날짜로 두 서신들 역시도 제네바에 보내졌다. 한 서신은 취리히 목회자회가 제네바 시위원회에 보낸 것이고(CO, VIII, pp. 232-233 : Réponse des ministres de Zurich au Senat de Geneve), 다른 서신은 취리히 시장이 제네바 정부에 보낸 것이다(CO, VIII, p. 234 : Lettre du Magistrat de Zurich à celui de Geneve). 앞의 두 서신들은 라틴어로 쓰였으나, 마지막 서신은 독일어로 기록되었다.

37) CO, VIII, p. 207 : "Zuinglium enim prae aliis omnibus damnans, Bullingerum eiusdem secum esse sententiae mentiebatur."

인 *De providentia Dei* 안에서 하나님을 죄의 창조자로 만들었다는 불색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변호하면서, 그 취리히 종교개혁자의 다른 저술들을 근거로 죄의 기원이 인간의 의지적 타락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³⁸⁾ 이러한 사안들에 덧붙여 불링거의 지도 아래 있는 취리히 목회자회는 제네바 교회의 관용을 촉구하였다. 바젤 목회자회는 11월 28일에 제네바 목회자회 앞으로 장문의 답변서를 보냈다.³⁹⁾ 그 교회는 불색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거부하면서도, 유기가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한다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고, 유기된 자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잘못에 의한 것임을 나타냈다. 바젤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도 칼뱅의 신학적 사상을 지지하는 면에서보다는, 오히려 성경의 구절들에 근거하여 자신의 생각을 단순히 표명하였다. 베른 목회자회는 취리히나 바젤보다 한참 뒤늦은 12월 7일에 긴 답변서를 보냈다.⁴⁰⁾ 불색의 문제를 관용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으며, 예정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와 선하심이 말해 주는 성경구절들을 신뢰하고 있는 선한 사람들의 당혹감을 강하게 상기시켰다. 드 팔렉스의 호소와도 관련이 없지 않은 베른의 반응은 당시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스위스 도시들의 반응으로 인하여 불색에 대한 제네바 시위원회의 판결은

38) *CO*, VIII, p. 233 : "Errat Hieronymus, nec recte beatae memoriae Zuinglii, doctoris ecclesiae nostrae fidelis, sensum et mentem intellexit : si putat illum docuisse, hominem necessitate adactum, adeoque a Deo compulsum, peccare. Ut enim huius aliquid fere colligi posse videatur libro eius de providentia Dei, alii tamen eius libri etiam consulendi sunt, quos ante et post illum edidit : in quibus diserte culpam peccati non derivat in Deum, sed ex humana corruptione et affectu ultroneo."

39) *CO*, VIII, pp. 234-237(Réponse des Ministres de Bâle à ceux de Geneve). 이 서신 이외에 바젤 목회자회는 11월 29일 날짜로 제네바 시위원회 앞으로도 짧은 서신을 보냈다(*CO*, VIII, p. 237 : Réponse des ministres de Bâle au Senat de Geneve).

40) *CO*, VIII, pp. 238-240(Réponse des ministres de Berne au Senat et aux ministres de Geneve). 이 서신과 함께 같은 날짜로 베른 시위원회는 제네바 정부 앞으로 서신을 보냈다(*CO*, VIII, pp. 240-241).

처음 칼뱅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호의적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칼뱅은 12월 18일에 열린 제네바 목회자 모임에서 자신의 구원론에 대한 입장을 바울서신에 근거하여 자세히 해설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신적인 예정론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서 불색의 비성경적인 주장이 비판되었다. 칼뱅의 강연은 제네바 시위원회로 하여금 불색에게 면죄부를 주도록 하지는 않게 하였다. 1551년 12월 21일에 불색에 대한 마지막 심문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 날인 22일에는 최종 판결⁴¹⁾이 내려졌다. 그리고 23일에는 트럼펫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피고인 불색에게 판결문이 선포되었다. 10월 16일 목회자 모임에서 주장된 불색의 입장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단적인 것으로 정죄되었다. 이와 함께 제네바에서 영구적 추방과 벌금형이 선포되었고, 또한 제네바로 돌아올 경우 태형을 받는다는 것이 덧붙여졌다. 하지만 불색은 세르베투스처럼 사형에 처해지지는 않았다. 드 팔렉스의 요구, 베른의 요청(과 다른 도시들의 권고), 많은 사람들의 호의적 판결에 대한 호소 등이 제네바 시의회의 판결을 부드럽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⁴²⁾

3. 칼뱅과 불링거의 신학적 갈등

불링거는 칼뱅과 불색 사이의 예정론 논쟁에 대한 부정적 결과에 대해 공적으로뿐만 아니라 또한 개인적으로⁴³⁾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 불색 논쟁

41) *CO*, VIII, p. 245(Deliberation et Jugement).

42) *CO*, XIV, p. 252 : "Hieronymus ipse publico iudicio in perpetuum exsilium eiectus est : atrocior poenam nos expetere falso quidem maledici eparsarant et stulte creditum est. Falesius noster, praesertim ob curatum ancillae cancrum, adeo se homini addixit ut propemodum fasciatus videri possit. Molestiam a nobis primo die excutere facile erat, sed piorum fratrum rogatu ea peste agrum Bernensem purgare studium fuit."

43) 불색 논쟁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된 1551년 11월 14일에 제네바 교회의 서신에 대한 취리히 교회의 공적인 답변서들(각주 26 참조) 이외에 불링거가 칼뱅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3통의 서신들과 불링거가 취리히와 제네바 교회에 보낸 예정론에 관한 공적인 서신이 있다 : 1. 1551년 11월 27일에 불링거가 칼뱅에게 보낸 서신(*CO* XIV, S. pp. 207-209) ; 2. 1551년 12월 1일에 불링거가 칼뱅에게 보낸 서신(*CO* XIV, S. pp.

으로 인한 칼뱅과 불링거의 신학적 갈등은 내용적으로 1555년까지 표출되었다.⁴⁴⁾ 하지만 결론에서 확인하겠지만, 그 갈등과 관련된 두 사람의 감정적 불편함은 그때까지 지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정론에 대한 입장 차이가 서로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단절되지도 않았고, 다양한 신학-교회적인 주제들과 관련하여 여전히 대화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취리히 교회도 베른과 바젤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1551년 11월 14일에 보내진 서신을 통한 제네바 교회의 요구 속에서 불색 논쟁에 대해 평가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미 언급된 것처럼 취리히 답변서도 제네바 교회의 기대를 온전히 채우지는 못했다. 불링거는 실천적인 사람으로서 체계적으로 구성된 예정론의 논리적 추론을 의식적으로 수용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⁴⁵⁾ 그는 목회적인 면에서 신학적 주제들이 논쟁적 성격 때문에 평신도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체계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정치적인 입장에서 신학적 논쟁의 과열로 인하여 교회의 갈등과 분열이 첨예화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평안과 안정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정론을 접근하는 관점적 차이로 인하여 칼뱅과 불링거 사이에 신학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두 사람 사이에 일정 시기 동안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로 감정적 갈등 역시 생겨난 것도 사실이다. 1551년과 1555년 사이에 불색의 논쟁과 관련하여 취리히 목회자회가 제네바 목회자회와 시의회에 보낸 공적인 서신들과 불링거가 칼뱅에게 보낸 사적인 서신들은 1549년 취리히 일치서(Consensus Tigurinus)의 합의를 상기시키면서 인간의 구원과 유기에 관한 예정론을 표명하고 있다.⁴⁶⁾ 이 서신들 안에서 불링거의 예정론에 대한

신학적 입장뿐만 아니라 동시에 칼뱅을 향한 애증(愛憎)적 감정 역시 확인된다. 물론, 이 감정은 오직 불링거에게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칼뱅도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면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⁴⁷⁾

예정론과 관련하여 칼뱅과 불링거 사이에 발생한 갈등의 중심에는 유기의 개념이 놓여 있다. 칼뱅이 스스로 ‘비참한 작정’(decretum horribile)⁴⁸⁾으로 표명한 하나님의 비밀한 작정에 근거한 유기의 개념⁴⁹⁾을 불링거는 수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유기가 하나님의 작정에 속할 경우 하나님을 죄의 원작자로 만들 수 있다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⁵⁰⁾ 칼뱅이 가까운 원인과 먼 원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만물의 원인이라고 해도, 가까운 원인에 있어서 실제로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의 원작자가 될 수 없다⁵¹⁾는 것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설득되지 못했다. 불링거는 예정론이 성경에 언급된 내용보다 더욱 논리적으로 발전하여 논의되는 것에 대해 경계를 한 것이 사실이다.⁵²⁾

당연히 예정론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두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본질적인 공통점이 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적 역할을 고려하는 펠라기안적 사고를 거부하고 어거스틴의 전통 위해서 구원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214-215); 3. 1552년 2월 20일에 불링거가 칼뱅에게 보낸 서신(CO XIV, S. pp. 289-290); 4. Aphorismi de Praedestinatione; de causis humanae salutis et damnationis aphorismi ex consensione re sacramentaria ministrorum ecclesiae Tigurinae et Genevensis, 27. November 1551(CO XIV, S. pp. 209-211).

44) 1553년 3월 말에 불링거가 칼뱅에게 보낸 서신(CO, XIV, pp. 510-511); 1555년 11월 2일에 불링거가 칼뱅에게 보낸 서신(CO, XV, pp. 852-855).

45) Walser, *Die Praedestination bei Heinrich Bullinger*, p. 168.

46) CO, VIII, p. 231, CO, XIV, p. 209(불링거는 취리히 일치서 안에서 표명된 인간의 구원과 유기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자신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47) CO, XIV, pp. 251-254; 1552년 3월 13일 칼뱅이 불링거에게 보낸 서신(CO, XIV, pp. 302-305).

48) *Institutio* 1559(CO, III, 23, 7.): "Terum quaero, unde factum est ut tot gentes una cum Uberis eorum infantibus aeternae morti involveret lapsus Adae absque remedio, nisi quia Deo ita visum est? Hic obmutescere oportet tam dicaces alioqui linguas. Decretum quidem horribile, fateor; infitiri tamen nemo poterit quin praesciverit Deus, quem exitum esset habiturus homo, antequam ipsum conderet, et ideo praesciverit, quia decreto suo sic ordinat."

49) CO, VIII, p. 207: "Sed in reprobis, quos Deus arcano suo consilio tanquam indignos praeterit ac deserit, illustre se profert humilitatis documentum."

50) CO, XIV, p. 253: "Novum opus a me promitti, in quo Deum non esse peccati autorem demonstrandum suscipiam, non recte interpretatus es."

51)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CO, VIII, p. 363): "Ergo quum iusta de causa, licet nobis ignota, a Domino procedant quae scelerate ab hominibus maleficia perpetrantur, etiamsi reram omnium prima causa sit eius voluntas, peccati tamen eum esse autorem nego."

52) CO, XIV, p. 215.

구원은 인간 스스로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에 의한 영원한 선택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⁵³⁾ 그리고 불링거 역시 깔뱅처럼, 물론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유기의 개념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있지만, 명료하게 선택과 유기에 관한 이중예정을 표명하고 있다.⁵⁴⁾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무가치하고 타락한 이들을 택하신 선택은 생명과 구원의 모든 것들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자유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것이며, 믿음에 근거한 모든 구원을 하나님의 자유로운 긍휼로 허락하신 것이다.⁵⁵⁾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은 결코 인간의 의지적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택의 증거로써,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로부터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선물로 주어진다.⁵⁶⁾ 그러나 유기된 자들은 작정적 운명을 통하여 멸망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결과로 멸망된다.⁵⁷⁾ 즉,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짐에도 불구하고 신적인 작정에 의해서 멸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링거의 이중예정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앞서 언급된 것처럼 유기가 하나님의 의지적인 작정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깔뱅이 유기를 하

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근거를 둔 것과는 다르게, 불링거는 유기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간 스스로부터 야기된 의지적 행위의 결과로 이해했다. 타락의 결과로 유기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영원한 저주에 이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깔뱅이 죄에 대한 허용을 하나님의 의지와 연결시키는 동안에⁵⁸⁾ 불링거는 오직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 허용(permissiones Dei universales) —하나님의 의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에 대해서만 인정하였다.⁵⁹⁾ 그리고 위의 전제 위에서 불링거는 선포된 복음의 효력에 있어서 보편적 성격을 지향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포로써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며, 모든 인간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포함한다는 것이다.⁶⁰⁾ 사실, 이 때문에 깔뱅은 불링거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게 미친다는 볼섹의 주장을 지지했다고 간주하면서, 이 때문에 서로가 연합하지 못함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⁶¹⁾ 그렇다고 해도 취리히 신학자가 말하는 복음의 효력은 볼섹에 의해 주장된 영원한 선택과 상관없이 인간이 현재적으로 복음에 반응을 하는 즉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식

53) *CO*, VIII, p. 207: "Satis convenit, fide nos iustificari: sed in eo apparet solida Dei misericordia, quum fidem intelligimus gratuita adoptionis esse fructum: adoptionem vero ex aeterna Dei electione fluere."

54) 볼섹에 대한 판결이 끝난 이후 1552년 2월 10일에 불링거가 미코니우스에게 보낸 서신(*CO*, XIV, p. 283): "Credo et doceo, una cum omnibus piis, Deum ab aeterno in Christo elegisse omnes credentes ad salutem, ideoque electos esse qui credunt, reprobos qui non credunt."

55) *CO*, VIII, p. 230: ".....electionem, qua Deus ab aeterno immeritos et peccatores elegit, ac in Christo complectitur, per quem omnia vitae et salutis habemus, omnino esse gratuitam, ac omnem hominis salutem(quod fidei fundamentum est) gratuita Dei misericordiae esse transscribendam....."; *CO*, XIV, p. 201: "Soli tamen Deo totum salutis nostrae opus acceptum ferre debemus,....."

56) *CO*, VIII, p. 230: ".....fidem, qua Christum complectimur, nullis impetrari nostris meritis, sed mera Dei gratia per spiritum et verbum donari, eademque Dei gratia eandem fidem in nobis augeri et conservari....."

57) *CO*, XIV, p. 211: "Qui vero pereunt non fatali necessitate adacti pereunt, sed quod libero suae voluntatis propriae arbitrio gratiam Dei patris munificentissime in filio oblatam respuunt."

58) 깔뱅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락을 구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람의 멸망을 뜻하지 않고 허락만 했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시고 아무것도 뜻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멸망을 초래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론을 한다. (참고, *Institutio* 1559(*CO*, II, XXIII, p. 8.): "Hic ad distinctionem voluntatis et permissionis recurritur, secundum quam obtinere volunt, permittente modo non autem volente Deo perire impios. Sed cur permittente dicemus, nisi quia ita vult? Quanquam nec ipsum quidem per se probabile est, sola Dei permissione, nulla ordinatione, hominem sibi accersisse interitum.")

59) *CO*, XIV, pp. 289-290.

60) *CO*, XIV, p. 215: ".....quum Deus sit philanthropos ac viam salutis suppeditet omnibus, quam, quum rebellionem propria non ingrediuntur....."(Dekade 4, Heinrich Bullinger Schriften IV, pp. 295-296: ".....dass ich deutlich und klar darlege, dass sich Christus und die Gnade Christi, die das Evangelium gebracht und angekuendigt hat, auf alle Menschen beziehen.")

61) *CO*, XIV, p. 252: "Porro an Dei gratiae tribuat omnia qui aequalem omnibus gratiam offerri iactat, eius autem efficaciam ex libero cuiusque arbitrio pendere, qui omnibus promiscue corda carnea dari garrat, hoc est gratiae capacia, ut autem quis eam recipiat ex proprio eius motu esse, tu videris. In summa ipsius causa vehementer dolet non meliorem esse inter nos consensum."

의 펠라기안적 보편구원론과 연결되지 않는다.⁶²⁾ 불링거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도 않고, 믿음을 선택의 증거로 보기 때문이다.⁶³⁾ 그에게 있어서 타락한 자들 중에서 선택과 모든 인간이 구원을 얻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은 논리적 모순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선택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향해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혜)을 표명한 것이다. 전 인류가 복음 선포의 대상임을 강조한 이해로 볼 수 있다.⁶⁴⁾ 덧붙여, 불링거는 타락전선택론적인 입장에서 아담의 타락에 대한 원인을 창조 전의 신적 작정으로 이해하여 하나님을 죄의 원작자로 오해하게 할 수 있는 갈뱅의 엄격한 논리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드러냈다.⁶⁵⁾ 당연히, 인간 스스로의 의지적 타락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불링거의 이해는 타락후선택론적(infraprasaristic)으로 귀결된다.⁶⁶⁾ 결국, 이중예정과 타락의 순서에 대한

62) 참고, CO, VIII, p. 206 : "Postea ad alterum caput descendit, non ideo salutem consequi homines quia electi sint, sed ideo eligi quia credant, nec reprobari quemquam nudo Dei placito, sed eos tantum qui se communi electione privant."

63) 불링거는 불섹 논쟁 직전에 쓴 *Dekaden*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Wenn du aber fragst : Wie kommt es, dass ich nicht alle gerettet werden, wenn doch der Herr will, dass alle gerettet werden und zur Erkenntnis der Wahrheit gelangen? weshalb ein guter Teil der Menschen das ewige Heil nicht erlangt, Dem entnehmen wir, dass Gott in der Verkuendigung seines Evangeliums von jedem von uns Glauben fordert, da ueberhaupt feststeht, dass wir durch den Glauben aller Gueter Christi teilhaftig werden."(Dekade 4, Heinrich Bullinger Schriften IV, p. 297) ; "Der Glaube ist also das untruglichste Zeichen dafuer, dass du erwaeHLT bist ; und wenn zur Gemeinschaft mit Christus gerufen und im Glauben unterwiesen wirst, zeigt dir der guetige Gott deine Erwaehlung und sein Wohlwollen dir gegenuber."(Dekade 4, Heinrich Bullinger Schriften VI, p. 454).

64) *Dekade 4, Heinrich Bullinger Schriften VI*, p. 296 : ".....wollen wir festhalten, dass das heilige Evangelium Christi der ganzen Welt die Gnade Gottes, die Vergebung der Suenden und das ewige Leben verkuendet."

65) De aeterna Dei Predestination(CO, VIII, 313) : ".....aeternam Dei pracesfinationem, qua de toto genere humano, et de singulis hominibus quid futurum esset statuit, antequam cecidisset Adam, fixam et decretam fuisse." ; CO, XIV, p. 289 : "Deum non tantum praevidissee sed praedestinasse et dispensasse lapsum Adami, huiusmodi esse videtur ex quo origo mali causaque peccati in ipsum possit reflecti Deum autorem."

입장은 갈뱅과 불링거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지만, 논리적인 접근에 있어서 확연히 구별된 것이다.

갈뱅은 신학자로서 당시 자신이 처한 신학적 논쟁의 현실과 관련하여 예정론을 지식-논리적인 이해로 접근한 반면에, 불링거는 목회적인 시각에서 예정론과 같은 논쟁적인 신학주제가 조심스럽게 다루어지기를 원한 것이다.⁶⁷⁾ 취리히 목사는 어떤 신학적 논쟁이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개신교회(der Protestantismus)의 일치를 저해하는 식의 대립으로까지 전개되지 않기를 기대하였다. 표현과 용어에 있어서 지나치게 상대방을 자극시키는 표현도 자제되기를 원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1551년 10월 16일에 발단되어 같은 해 12월 23일에 국외 추방으로 재판의 판결이 마무리 된, 불섹의 사건과 관련하여 긴 시간 동안 갈뱅과 불링거 사이에 쉽게 풀리지 않는 신학적 갈등을 야기시킨 것이 사실이다. 서신교환과 관련하여 확인할 때 불링거에게 있어서 그 기억은 1555년 11월 2일까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날짜가 적혀 있는 서신에서 불링거가 여전히 갈뱅을 설득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나는 너에게, 너무 무리하게 모든 호의를 거부하거나 과거보다 더욱 미움을 사게 만드는 예정론의 문제를 끄집어내지 않기를 권면한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으며 또 죄짓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에 의해 죄를 지었다는 식의 말의 표현들은 경계되어야 한다. 특별히 나는 네가 이미 자유주의자들에 반대하여 하나님이 죄의 원작자가 아님을 주장한 것은 매우 기뻐다."⁶⁸⁾ 이

66) Herman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Bd. II, Kampen 1998, p. 320 : "Er waren er altijd, die de leer der praedestinatatie, uit vrees voor misbruik behandelden 'a posteriori, van beneden op'. Ze hielden meer van de methode, om op te klimmen uit het gevolg tot de oorzaak, uit de vrucht tot den wortel, en om uit het geloof en de bekeering tot de verkiezing te besluiten en deze dan aan te wenden tot troost en verzekering, dan dat zij apriori uit de idee Gods de praedestinatatie en electie afleidden. Daartoe behoorden vooral Bullinger, Ursinus, Olevianus, Boquinius, Hyperius, Sohnius e. a."

67) Willem van't Spijker, Bullinger als Bundestheologe, in : *Heinrich Bullinger Life-Thought-Influence*, Zürich, Aug. pp. 25-29, *2004 International Congress Heinrich Bullinger(1504-1575)*, hg. von Emidio Campi & Peter Opitz, Bd. II, Zürich 2007, p. 587.

언급은 1552년 처음 요하킴 베스트팔(Joachim Westphal)이 1549년 갈뱅과 불링거 사이에 합의된 성만찬론을 공격한 이래로 1555년에 갈뱅이 *Consensus Tigurinus*을 변호하기 위한 해설서로 작성한 *Defensio*⁶⁸⁾의 내용과 출판에 대한 논의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불링거는 갈뱅에게 예정론의 문제가 신중하게 다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권면은 예정론이 종교개혁 이후 결국 교회를 양분화시킨 결과를 초래한 성만찬 논쟁보다 더 크고 첨예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염려의 표현이다.⁷⁰⁾ 이와 관련하여 이 서신에서도 왜 불링거가 갈뱅의 예정론을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단서를 인식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유기의 원인을 인간의 자유의지적 타락의 결과로 인식하였던 불링거에게서 갈뱅이 타락과 유기의 원인을 신적 작정에 두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죄의 원작자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초기의 우려가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링거의 설득에도 갈뱅은 자신의 신학적 고유성을 끝까지 유지해 나갔다. 물론, 볼섹 논쟁과 관련하여 갈뱅 역시 서신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죄의 원작자로 만들었다고 오해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CONGREGATION FAITE EN L'ÉGLISE DE GENEVE, De aeterna Dei Preadestinatione*, 1559년 판 *Institutio* 등과 같은 자신의 저술들을 통해서 (베른과 바젤의 신학자들과 함께) 불링거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갔다.⁷¹⁾

68) *CO*, XV, pp. 854-855: ".....hic suggero, ne praedestinationis negotium ita proponas ut toti operi omnem auferas gratiam et te magis invisum reddas quam antea unquam. Abstinentum itaque puto ab huiusmodi loquutionibus: Adamum ita esse conditum ut non potuerit non peccare: Qui peccant, eos omnino ex destinato Dei consilio peccare. Placuerunt mihi maxime quae aliquando scribebas contra Libertinos, asserens Deum non esse malorum autorem."

69) *Defensio sanae et orthodoxae doctrinae de sacramentis*(*CO*, IX, pp. 1-40).

70) *CO*, XIV, p. 855: "Haec non ut te doceam commemoro, sed admoneo, circumspice in hac causa verseris, ne maius oriatur incendium ex praedestinatione quam ex eucharistia."

71) Wilhelm H. Neuser, "Calvins Kritik an den Baseler, Berner und Zuericher Predigern in der Schrift, *De Preadestinatione* 1552," *Zwingliana* XIX(1993), pp. 237-243.

1549년에 도출된 *Consensus Tigurinus* 안에서 이해된 성만찬론과 다르게 예정론은 취리히와 제네바 사이에 발생한 신학적 간격을 좁힐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신학적 갈등은 1556년에 피터 마터 베어미글리(Peter Martyr Vermigli)가 취리히 학교(Schola Tigurinus) 구약교수로 온 이래로 완화된 것이 사실이다. 베어미글리의 죽음으로부터 14년 후에 출판된 *Loci Communes*⁷²⁾는 16세기에 갈뱅의 「기독교강요」와 불링거의 *Dekaden* 다음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신학저술이다.⁷³⁾ 여기에서 베어미글리는 갈뱅처럼 각 사람들은 영원 전에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작정으로부터 선택과 유기로 결정되었다는 엄밀한 이중예정론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죄의 원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동시에 창조하셨다는 것과 관련하여 신적인 의지 없이 죄가 이 세상에 발생할 수 없다는 것 역시도 역설하였다.⁷⁴⁾ 이때 베어미글리는 하나님이 죄의 원인자처럼 인식될 수 있는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죄를 허용하셨지만, 그러나 그 허용이 죄의 유효적 원인(Causa efficiens)은 아님을 밝혔다.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유효적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없고, 오직 그 죄를 실제적으로 범한 인간에게 있음을 말한 것이다.⁷⁵⁾ 타락과 선택의 순서에 있어서 베어미글리는 불링거와 마찬가지로 타락후선택론의 입장에서 서 있다.⁷⁶⁾ 물론, 예정론에 대한 불링거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1556년 이후로 갈뱅과 베어미글리에 의해 주장된 유기를 하나님의 작정과 연결시켜 이해하는 엄밀한 예정론을 과거보다는 더욱 긍정적

72) 원제목: Petri Martyri Vermiglii, *Florentini praestantissimi nostra aetate theologi, Loci Communes*, Ed. R. Massonius, London, 1576(이하 *Loci communes*).

73) Christoph Strom, "Petrus Martyr Vermigli's Loci Communes und Calvins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n: *Martyr Vermigli: humanism, republicanism, reformation*, hg. Emidio Campi u. a, Genève: Droz, 2002, p. 77.

74) Alexander Schweizer, *Die protestantischen Centraldogmen I*, Zuerich: Bei Orell, Fuessli und Comp, 1854, p. 288.

75) *Loci Communes*, pp. 70-73.

76) Venema, *Heinrich Bullinger and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pp. 55-72.

이고 적극적으로 포용하려고 했다는 것이다.⁷⁷⁾ 이에 대한 증거는 1559~1561년에 펠라기안적 보편구원론을 주장한 테오도르 비블리안더(Theodor Bibliander)와 베어미글리 사이에 발생한 취리히 예정론 논쟁과 1561~1563년에 스트라스부르그에서 후계자인 기롤라모 잔키우스(Girolamo Zanchius)와 요한 말박(Johannes Marbach) 사이에 예정론 논쟁이 발생했을 때 잔키우스 14개 조항에 대한 취리히 답변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불링거가 베어미글리의 엄밀한 예정론의 입장을 존중한 것과 연계되어 있다.⁷⁸⁾

나가며

예정론에 대한 신학적 갈등은 칼뱅과 불링거 사이에 다른 신학적인 문제들에 관한 대화를 단절시켰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예정론에 대한 긴 갈등적 논의 옆에서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상황과 위그노들에 대한 문제들, 영국의 정치 변화, 제네바와 베른 사이의 정치적인 긴장관계들, 칼뱅과 요아킴 베스트팔(Joachim Westphal)의 성만찬 논쟁 같은 다양한 주제들이 대화의 내용으로 늘 두 사람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예정론과 관련하여 칼빈과 불링거 사이에 긴장관계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각자의 독립된 길을 걷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두 사람의 성숙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칼빈과 불링거는 유럽과 스위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대한 신학과 교회문제들에 대해서 평생을 두고 지속적인 의견 교환과 정보 공유를 시도하였다.⁷⁹⁾

더욱이, 불색 논쟁으로 인한 예정론의 갈등이 신학적 내용의 표명과 관련하여서는 1555년까지 지속되었지만, 서로의 불편한 감정에 있어서는 1553년 봄

에 해소가 된 것처럼 보인다. 불링거는 1553년 3월 말에 쓴 서신에서 칼뱅에게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확실히 우리는 불색 논쟁 안에서 모든 점에서 동일한 생각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 이유 때문에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⁸⁰⁾ 칼뱅 역시도 1553년 4월 초에 보낸 답변서 안에서 불링거에게 다음과 같은 마음을 표명하였다. “나는 너를 주님의 사역들 안에서 마음을 나누는 동지로 그리고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동역자 이외에 다른 관계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교회를 위한 공적인 삶 안에서 그토록 많은 업적을 세웠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나에게 항상 친구였던 한 사람에 관하여 언어와 글로 우호적이고 존경스러움 이외의 결코 다른 어떤 식으로 표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싶다. 즉, 이 때문에 여전히 근심이 너를 고뇌하게 하고 있다고 해도, 너는 앞으로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⁸¹⁾ 이와 관련하여 불링거의 *De providentia dei*⁸²⁾를 읽고 같은 해 12월 30일 서신에서 베어미글리가 표명한 내용 역시도 주목될 필요가 있다. “나는 너의 섭리에 관한 글을 큰 기쁨으로 읽었다. 내가 너를 아는 것처럼, 나는 네가 이 가르침으로 불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너의 신망이 다른 사람이 불화를 일으키길 원해도 그 불화를 제거할 것이라고 확신한다.”⁸³⁾ 이 표현으로 볼 때

80) CO. XIV, p. 510 : “Licet vero in causa Hieronymiana non per omnia votes tuis responderim, ideo tamen non odi,”

81) 1553년 4월 초에 칼뱅이 불링거에게 보낸 서신(CO. XIV, 514) : “……quum te non secus ac unanimem et individuum in opere Domini socium complectar. Persuasum deinde tibi esse velim, nunquam me vel scripsisse vel loquutum esse, nisi et amanter et honorifice, de eo viro, qui et publice de ecclesia tam praeclare meritis est, et mihi privatim semper amicus fuit. Si qua igitur te eius rei cura pupugit, securus in posterum quiescas licet.”

82) Schweizer, *Die protestantischen Centraldogmen I*, p. 266 ; Walsler, *Die Praedestination bei Heinrich Bullinger*, p. 194. 이 저술은 불링거가 1553년 3월 3일에 트라헤론에게 보낸 서신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당시 필사본으로 사람들에게 소개되었는데, 원제목은 다음과 같다 : *De providentia dei eiusdemque predestinatione, electione ac reprobatione, deque libero arbitrio et quod deus non sit autor peccati*, 1553.

83) Schweizer, *Die protestantische Centraldogmen I*, p. 275(1553년 12월 30일에 베어미글리가 불링거에게 보낸 서신 : “Deine Schrift ueber die Vorsehung habe ich mit grosser Freude gelesen : wie ich dich kenne, besorge ich nicht, dass du ueber

77) 박상봉, 1556년 이후 하인리히 불링거의 예정론, p. 15.

78) 위의 책, pp. 7-12(Joachim Staedtke, “Der Zuercher Praedestinationsstreit von 1560,” *Zwingliana IX*(1953), pp. 536-546 ; Ferdinand Meyer, *Die evangelische Gemeinde in Locarno, ihre Auswanderung nach Zürich und ihre weitem Schicksale*, Bd. II, zuerich : S. Höhr, 1836, pp. 42-44.)

79) Emidio Campi, “Beza und Bullinger im Lichte ihrer Korrespondenz,” in : *Théodore De Bèze(1519-1605)*, hg. von Irena Bachus, Genève : LIBRAIRIE DROZ S. A., 2007, p. 143.

불링거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예정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취리히 신학자는 제네바 동료를 당연히 의식하지 않았을까? 칼빈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베어미글리의 평가는, 이미 앞선 시간(1553년)에 서로의 불편한 감정을 정리했던 두 신학자들 사이의 신뢰를 신학적으로도 강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1546년 4월 6일에 칼뱅이 불링거에게 생의 마지막 서신을 보내기 전까지 두 사람의 관계는 자신들의 시대 앞에 놓인 신학과 교회의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신앙동지로서 유지되었다.

결론적으로, 칼뱅과 불링거가 추구한 예정론에 대한 신학적 차이는 신학적 본질에 있지 않다. 칼뱅은 논쟁적인 현실 속에서 신학적인 선명함을 더 추구한 반면에, 성만찬 논쟁으로 루터와 츠빙글리의 불화로 개신교회가 분열된 이후 더욱 불안해진 정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불링거는 교회의 안정을 추구하며 목회적인 고려를 한 것이다. 불색 논쟁과 관련하여 예정론을 표명하는 것에 있어서 칼뱅은 신학자였고, 불링거는 목회자였다.⁸⁴⁾

참고문헌

ACTES DU PROCÈS INTENTÉ PAR CALVIN ET LES AUTRES MINISTRES DE GENEVE A JÉRÔME BOLSEC DE PARIS. 1551.

Alexander Schweizer, *Die protestantischen Centraldogmen I*, Zuerich : Bei Orell,

diese Lehre ein Zerwuerfniss veranlassen werdest, sondern ich weiss, dass dein Ansehen ein solches, wenn Andere des herbeifuehren wollen, beseitigen wuerde.”). 비록 불링거가 죄의 원인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 속에서 엄격한 이중예정에 대한 분명한 지지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베어미글리는 불링거의 예정론에 대해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 구약학자가 취리히 학교의 교수로 청빙이 되었을 때 제네바행을 거절하고 취리히 제안을 수용한 것 역시도 불링거의 신학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84) Willem van't Spijker, Bullinger als Bundestheologe, in : *Heinrich Bullinger Life-Thought-Influence*, Zürich, Aug. pp. 25-29, 2004 *International Congress Heinrich Bullinger(1504-1575)*, hg. von Emidio Campi & Peter Opitz, Bd. II, Zürich 2007, p. 587.

Fuessli und Comp, 1854.

C. B. Hundeshagen, *Die Konflikte des Zwinglianismus, Luthertums und Calvinismus in der bernischen Landeskirche*, Bern 1842.

Christoph Strom, “Peturus Martyr Vermigli Loci Communes und Calvinus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n : *Martyr Vermigli : humanism, republicanism, reformation*, hg. Emidio Campi u. a, Genève : Droz, 2002.

Colnelis P. Venema, *Heinrich Bullinger and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Michigan : Baker Academic, 2002.

De libero hominis arbitrio et divina gratia libri decem autore Alberto Pighio Campen, Coloniae 1542 mene Augusto.

Emidio Campi, Beza und Bullinger im Lichte ihrer Korrespondenz, in : *Théodore De Bèze(1519-1605)*, hg. von Irena Bachus, Genève : LIBRAIRIE DROZ S. A., 2007.

F. W. Kampschulte, *Johann Calvin : Seine Kirche und sein Staat in Genf*, Leipzig : Verlag von Duncker & Humblot, 1899.

Herman J. Selderhuis(Hg.), *Calvin Handbuch*, Tuebingen : Mort Siebeck 2008. *Heinrich Bullinger Schriften III-V*, hg. Emidio Campi, Zuerich : TVZ 2006.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 W. Baum, E. Cunitz und E. Reuss, Braunschweig 1863-1900.

Joachim Staedtke, Der Zuercher Praedestinationsstreit von 1560, *Zwingliana IX* (1953).

Mirjam van Veen, *In exce ; so honoris gradu*, Johannes Calvin und Jacques de Falais, *Zwingliana XXXII*(2005).

van Heike A. Oberman, *Via Calvini : Zur Entraetselung der Wirkung Calvinus*, *Zwingliana XXI*(1994).

Perter Walser, *Die Praedestination bei Heinrich Bullinger*, Zuerich : Zwingli-Verlag 1957.

Peter Opitz, *Leben und Werk Johannes Calvinus*, Goettingen : Vandenhoeck & Ruprecht 2009.

Petri Martyri Vermilii, *Florentini praestantissimi nostra aetate theologi. Loci*

Communes. Ed. R. Massonius, London, 1576.

Willem van't Spijker, "Bullinger als Bundestheologe." in : *Heinrich Bullinger Life-Thought-nfluence*. Zurich, Aug. 25-29, 2004 International Congress Heinrich Bullinger(1504-1575). hg. von Emidio Campi & Peter Opitz. Bd. II, Zürich 2007.

Wilhelm H. Neuser, *Calvins Kritik an den Baseler, Berner und Zuericher Predigern in der Schrift De Preadestinatione 1552*. Zwingliana XIX (1993).

데오도르 베자. 김동현 역. 「존 칼뱅의 생애와 신앙」. 서울 : 목회자료사, 1999.

필립 샤프. 박경수 역. 「스위스 종교개혁」. 서울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한글초록】

1549년 *Consensus Tigurinus*가 도출된 이후에 제네바에서 발생한 제롬 볼섹(Jerom Bolsec)의 예정론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칼뱅과 불링거 사이에 신학적 갈등이 발생했다. 칼뱅과 불링거 사이에 신학적 반목을 낳게 한 근원적 질문은 '유기'의 개념이다. 선택과 유기를 하나님의 의지적 작정에 근원을 두고 있는 칼뱅의 입장과 다르게, 불링거는 오직 선택만을 하나님의 작정에 근원을 두었으며, 반면에 그는 유기를 신적인 명령에 반대하여 자유의지적 불순종에 근거한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간주하였다. 불링거가 유기를 하나님의 의지와 연결하여 이해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칼뱅과 교류한 서신들의 내용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추측한다면 "죄의 원작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리적 해답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칼뱅과 불링거가 추구한 예정론에 대한 신학적 차이는 신학적 본질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분명하게 어거스틴의 전통 안에서 이해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칼뱅은 논쟁적인 현실 속에서 신학적인 선명함을 더 추구한 반면에, 성만찬 논쟁으로 인한 루터와 츠빙글리의 불화로 개신교회가 분열된 이후 더욱 불안해진 정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불링거는 교회의 안정을 추구하며 목회적인 고려를 한 것이다.

【주제어】

칼뱅, 불링거, 제롬 볼섹, 취리히 일치서, 예정론

【Abstract】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ensus Tigurinus" in 1549, a theological dispute arose between Calvin and Bullinger in relation to a critical assessment of predestination against Bolsec. The essential question why the theological hostility between the two reformers developed results from the concept of 'reprobation'. Against Calvin's notion of election and reprobation in a ewing decree, Bullinger has established only election as the eternal decree in Christ against the sinful people. Conversely, Bullinger regarded the reprobation as the result of the fall of people due to voluntary disobedience against the divine command. One might not know the specific reason why Bullinger did not understand the concept of reprobation in connection with the divine decree, but it could probably be said reading the correspondence with Calvin that this reason is combined with a logical answer to the question "who is the author of evil?". Nevertheless, there is no essential difference of theological substance between Calvin and Bullinger because both can be understood according to the Augustinian tradition. It could be concluded that Calvin, who was striving for a theological clarity in the disputing situation in Geneva, Bullinger on the other hand tried to comfort the church which was in a political turmoil resulting from the Lord's Supper dispute between Luther and Zwingli, with a pastoral preaching.

【 Keyword 】

Calvin, Bullinger, Jerom Bolsec, Consensus Tigurinus, Predestination